산업별 창업 동향

I 산업별 창업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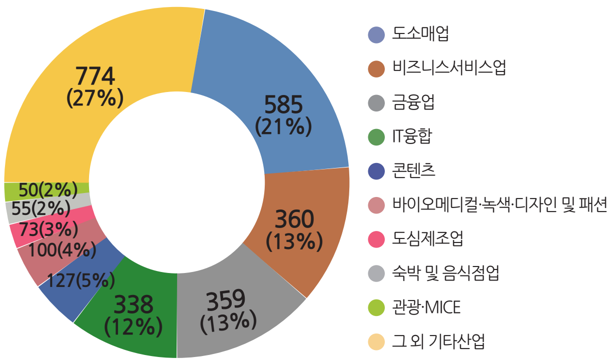
• 2018년 11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,821개

•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585개, 비즈니스서비스업 360개, 금융업 359개, IT융합 338개, 콘텐츠 127개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 100개, 도심제조업 73개, 숙박 및 음식점업 55개, 관광·MICE 50개, 그 외 기타산업 774개가 창업

- 그 외 기타산업은 주요 9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(235개), 제조업(186개), 건설업(120개) 등이 큰 비중을 차지

[그림 1] 2018년 11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단위: 창업법인 수 [비중 %]



I 법인창업지수 증감률(전년동월 대비)

•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116.6으로 0.1% 감소하여 전년 동월과 비슷한 보합세

• 금융업(10.8%)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도소매업(6.9%)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(4.2%), IT융합(1.2%) 산업도 증가

• 금융업은 구성 업종 중에서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,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, 자산운용회사 등이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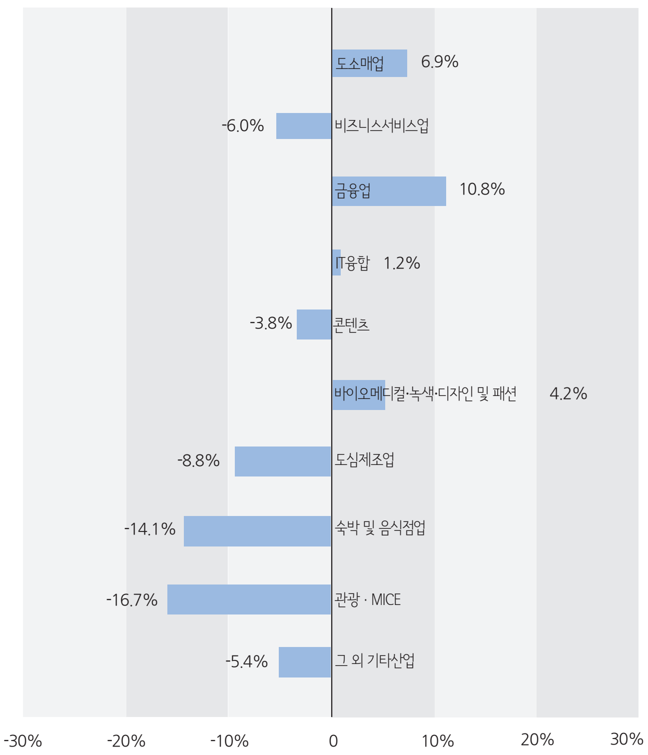
-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은행, 개발금융회사,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기관을 제외한 단기 신용서비스, 증권금융, 전당포 등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금융기관이 포함

-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은 뮤추얼펀드관리, 유가증권관리서비스 등 수수료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관리, 신탁 및 보관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

- 자산운용회사는 뮤츄얼펀드 조성 및 관리, 기금신탁운영(금융자산투자) 등 증권발행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 및 기타 신탁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함

• 반면 관광·MICE(-16.7%), 숙박 및 음식점업(-14.1%), 도심제조업(-8.8%), 비즈니스서비스업(-6.0%), 그 외 기타산업(-5.4%), 콘텐츠(-3.8%) 산업은 감소

- 관광·MICE는 구성 업종 중에서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

- 올해 2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인 도심제조업은 10월 반짝 급등하였으나 11월 들어 다시 감소로 돌아섬

[표 1] 2018년 11월 산업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